

/ 강원에코홈페어 2017 참여기업 소개 /

서민 주택금융 파트너역할 특특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 취업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한국주택금융  
공사 강원지사  
(대표:박창모)는  
2004년 출범한  
공기업으로 서민  
의 주택금융 파트  
너 역할을 도맡고



있다.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로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을 가진 보금자리론은 서민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을 시행 중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최대 4,000만원까지 전세 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한국폴리텍대  
학 춘천캠퍼스  
(학장:김인배)는  
국책특수대학이  
다. 현장실무 중  
심의 융합형 기  
술인재를 양성,  
취업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춘천캠퍼스는 2015년 2월 학위과정 졸업생 83.2%, 전문기술과정 80% 이상이 취업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각종 장학금과 전문기술과정 무료 교육 등 학비 걱정 없는 대학으로 유명하다. 첨단 실험장비를 갖추고 우수 학생 해외연수도 꾸준히 진행해 우수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 전문기술과정은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 “三重쫓에 갇힌 국내 건설수주

(부동산 규제·금리인상·SOC예산 축소)

## 내년 136兆... 올보다 11% 급감”

올해 국내 건설수주 규모가 지난해보다 6.6% 감소한 154조원에 그칠 것 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련기사 4면

내년에는 수주액이 136조2000억 원으로 줄면서 감소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 기 조,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급감 등 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18

### 건설경영협회 2018 전망

올 수주액도 154조원으로  
작년보다 6.6% 줄어 들 것

년 건설시장 환경 변화와 대응’ 발표 회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강승민 NH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은 발표자료에서 “올해 국내 건설수 주는 154조원으로 소폭 줄지만 내

년에는 그 감소폭이 11.6%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 4분기부터는 8·2 부동산 대책과 SOC 예산 조기 집행으로 수 주 부진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10.4%) 과 민간(-12.0%)이 동반 부진하고, 공 종별로도 토목(-8.4%)과 건축(-12.8%) 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건축 예산 잇단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비주 거용(-11.8%)보다 주거용(-13.6%)이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수주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해외수주액은 311억달러 로 지난해(282억달러)보다 10.3% 늘고, 내년에는 다시 350억달러로 12.5% 증가하는 것으로 점쳤다. 다만 아직 건설사들의 추가 손실과 저 가 수주 환경이 지속돼 예상보다 개 선폭은 부진할 것이라고 봤다.

김태형기자 kth@ ▶2면에 계속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인 '제3회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향상 정책포럼'이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관계와 건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이용건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안윤수기자 ays77@

## “건설업계, 도시정비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도시재생 정책포럼 ‘성황’

지방 중소건설사부터 설계엔지니어링 업체까지, 50조원 규모의 뉴딜 사업에서 새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건설업계의 열기는 뜨거웠다.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3회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향상 정책포럼'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

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외 천길주 삼부도 건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15면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 “건설업계의 관심이 구도심 개발과 맞물린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집중됐다”며 “이번 포럼이 국토교통부와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

기관과 민간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과 김현아 의원, 손병석 차관은 도시재생 뉴딜이 과거의 단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만큼 건설업계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은 “오늘 포럼에 이처

럼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가 도시재생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도시재생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건설사들이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희기자 jh606@

# “경영환경 급변 대응… 연착륙 대책 마련해야”

건설사 경영진은 2018년을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 원년’으로 삼아 경영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축소지향적 SOC 예산 편성과 강도 높은 주택 규제, 금리 인상 본격화 등 내년부터 경영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최한 ‘건설시장 환경 변화와 대응 발표회’의 주제발표 자료에서 내년도 경영전략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존 주택부문 수주물량 덕에 상반기까지는 예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다. 공공 SOC 예산 축소와 민간 부동산 시장의 하향안정화, 해외건설 수주 확대 한계 등이 맞물려서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국내 공공시장에선 양적 축소와 질적 고도화, 사회적 역할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물량 축소에 대응해 2~3개 특화 공종 확보가 필요하다. 향후 수요, 기술변화 예측, 자사 실적 및 보유 기술자

## 공공

2~3개 특화 공종 확보 필요

원가상승 대비해 생산성 제고

## 주택

미입주 최소화·수익성 관리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 필요

등을 검토해 경쟁우위 공종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공사의 관리 키워드는 공정경쟁과 부실, 안전으로 요약된다.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 늘리기 정책, 사회적 책임 강조에 따른 원가상승에도 대응법을 찾아야 한다. 실행예산 관리와 조달관리, 간접비 관리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개정 입찰제도의 충족요건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 접목 추세에 대응하려면 ICT(정보통신기술), 드론, BIM(빌딩정보모델링) 등의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대형 인프라 시설의 유지보수 분야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내 민간시장의 경우 하방 리스크와 불확실성 확대, 패러다임 전환에 맞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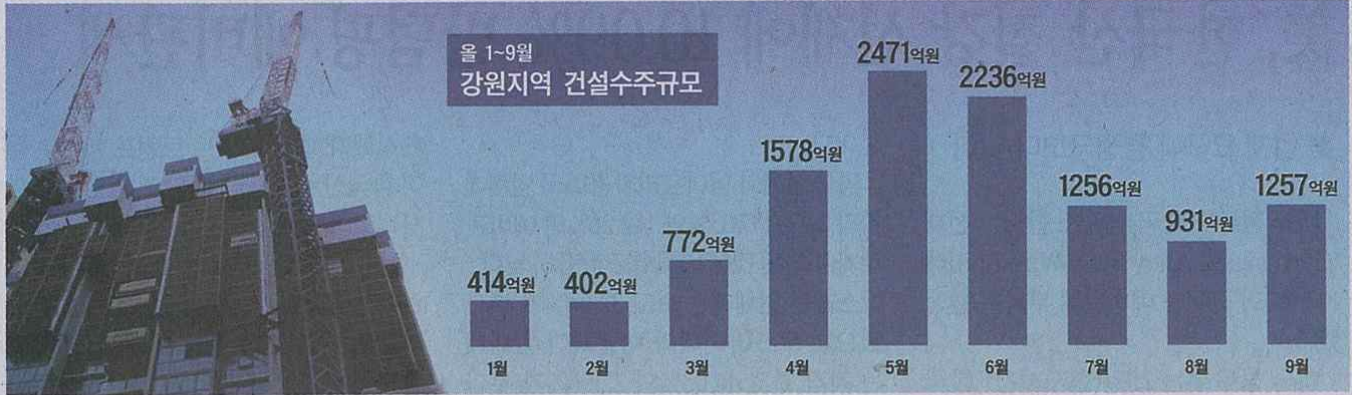
주택분야에선 미입주 최소화와 부실·하자 관리로 기업(브랜드) 이미지 및 수익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이미 수주한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

고가형 주택뿐 아니라 보급형 주택에서 원가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임대주택, 청년층 주택, 신혼부부형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응하는 자체 로드맵도 짜야 한다.

해외사업 비중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 기조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야 한다. 다만 당분간 유가 급등이 어려운 만큼 중동을 기반으로 하되 아시아 인프라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와 대정부 추진사업의 동반 진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태형기자 kth@



## 강원지역 3분기 건설수주 호조

# 올 수주액, 작년수준 넘어설까

〈3분기까지 1조1323억〉

〈1조4832억〉

지난 3분기 강원도 내 건설업체의 수주액이 전년 3분기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에 미치지 못했던 올해 전체 수주액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26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도회 회원사의 건설수주액은 3444억9000만원가량이다. 지난해 3분기 수주액 2362억원보다 45%가량 증가했다. 특히 9월 건설 수주액은 1257억4000만원가량으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다. 3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전체 수주액도 지난해 수준보다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액은 7878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8537억2000만원보다 8%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3분기에 깜짝 수주 실적을 내면서 올해 9월까지 도내 전체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정도 늘어난

### 건협 강원도회 집계

3분기 3444억9000만원

지난해보다 45%나 증가

9월은 2007년 이후 최대

### SOC관련 예산 축소따른

신규사업 차질때 다시 감소

1조1323억2000만원을 나타냈다.

올해 3분기까지 수주액도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다. 올해 하반기 들어 건설수주액이 호조를 보이면서 도내 연간 수주액도 지난해 수준을 뛰어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도내 전체 수주액은 1조4832억2000만원으로 2010년(1조5459억

8000만원)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러나 도 건설업계는 도내 SOC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시 수주액 감소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가량 줄인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도에서 추진하던 신규 건설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제천~삼척 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의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제외된 상태다.

건설업은 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2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이 위축되면 도 경기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 수주액이 나아졌지만 건설업 시장 자체는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건설업이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건설 발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